

< 아침을 여는 지혜 >

무릎 꿇고 있는 나무

로키 산맥 해발 3천 미터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은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 온 사람입니다.

< 범정 스님 >

삶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의 그 어떤 결정이라도

심지어 참으로 잘한 결정이거나, 너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는 거지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 습(習)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오답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 후회를 한다는 것은

지난 삶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정답이 아니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확히 내 자리가 맞습니다.

결혼을 누구와 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것이며

대학을 어디를 갈까에 무슨 정답이 있겠고,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때 그 대학에 입학했더라면

그때 또 그때.. 한없이 삶의 오답을 찾아내려 하지 마세요.

정답, 오답하고 나누는 것이 그 분별이 괴로움을 몰고 오는 것이지

우리 삶에는 그런 구분이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어느 길이든 정답 오답 나누어 정답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 아닌 정답이며, 오답 아닌 오답인 것이지요.

<朝を開く知恵>

ひざまずいている木

ロッキー山脈の海拔3千メートルの高さに樹木限界線である地帯があります。

この地帯の木木は鋭い風によって真っ直ぐに育つことができずに

‘ひざまずいている姿’を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木木は劣悪な条件だが生存のために恐ろしい忍耐を発揮しながら過ごします。

ところで世界的に一番共鳴が良い名品バイオリンは

まさにこれ‘ひざまずいている木’で作ると言います。

美しい魂を持って人生の絶妙のメロディーを出す人は

何らの苦難なしに良い条件から暮して来た人ではなく

あらゆる逆境と痛みを経験して来た人です。

<法頂：お坊さん>

暮らしには正解というのがないです。

暮らしでのどんな決定でも

甚だしくはまことにお上手な決定やとても下手な決定でも、

正解になることができるし誤答もな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真実になることもできて、偽りになることもできるはずです。

それなのに人々は正解を捜して

絶えず迷って通うのが習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正解がないということは言い換えれば皆が正解になることもできて

皆がどの位誤答の可能性も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

過ぎた生を振り返えて後悔をするというのは

去る生の選択が間違ったと正解ではなかったと分別するのです。

そんな必要はないです。

今この席が正確に私の席であります。

結婚を誰とするかに何の正解があるはずないし、

大学をどこに行くかに何の正解があるはずないし、

どの職場に就職するかに何の正解がありますか？

あの時その人と結婚したら、あの時その大学に入学したら

あの時またその時.. 限りなく生の誤答を捜し出そうと思わないでください。

正解、誤答して分けるのがその分別がつらさを駆って来ることだろう

私たち生にはそんな仕分けと言うのは最初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らないと

ある道でも正解誤答分けて正解であるのではなく、

そのまま受け入れればそのまま正解であることです。

正解ではない正解であり、誤答ではない誤答であることですね。